연구자료 D162 / 2002. 3

2001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김 동 원 전문연구원
조 태 회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머 리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연구원 개원 이래 현장감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 왔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2001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93년 UR협상 타결 이후 일관되게 조사문항에 포함했던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방농업시대 농촌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WTO 출범 등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한 견해, 쌀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인식 전환 등 최근의 농업 이슈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에 포함해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따른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를 파악코자 하였다.

이 조사연구가 농정의 1차 수혜자인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를 기초로한 농업정책수립과 연구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바쁜 일정중에도 많은 문항에 꼼꼼히 응답해 주시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신 현지통신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2.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요 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개원시부터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각종 여론조사사업과 농정모니터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사항과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연구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 「2001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는 2001년 11월 17일부터 12월15일까지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63명에게 우편으로 53개 문항의 설문지를 발송, 이중 조사에 성실히 응한 868건(회수율 42.1%)을 대상으로 SAS와 Excel 등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 「2001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및 태도는 부정적인 반응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해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 농촌 생활에 대한 기대도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들은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과 애로사항, 불만사항, 그리고 정부의 농업정책중 성과가 미진했던 점 모두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같은 경향은 최근 6~7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시 농산물 가격 변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면, 전년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농가부채경감특별법시행 등으로 관심도도 낮아졌고, 정부의 농업정책 중 가장 성과가 컸던 부문으로도 꼽아 농업인들의 농가부채에 대한 불만은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농업인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 12.6%에서 2001년에는 9.9%를 기록함으로써 '93년 UR 협상 타결 시점 조사결과와 같은(9.9%) 비율을 보였고, 자녀에 대한 농업승계 의향도 2.5%에 그침으로써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촌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견해는, 2001년 농촌생활 수준이 5년전과 비교해서 향상되었다는 응답비율이 20.8%인 반면, 퇴보했다는 비율은 그 배에 달하였고, 2002년과 5년후의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 1.7%와 4.4%에 그쳐 농촌의 장래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서 대다수의 농업인(93.9%)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WTO 차기협상에서는 '시장의 점진적 개방' 관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2001년 쌀값 하락 등 쌀산업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해 농업인 84.1%는 쌀산업 환경변화에 대해 양정의 기본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들중 94.4%는 중산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농업인들은 대체적으로 쌀산업 정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 농업인들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으로 '농가 소득안정직불제'(40.9%)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매가격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3%인 반면,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61.7%에 달하였다.

○ 쌀값 하락과 2004년 쌀 재협상 등 벼농사 환경 악화에 대해 농업인 14.0%는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확대하겠다는 농업인은 2.2%에 지나지 않았다.

○ 끝으로, 농업인들의 기타 의견 및 건의 사항으로는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전반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을 비롯해 농지규제 완화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농업 보호대책 마련 등의 건의와 요구가 있었다.

목 차

Ⅰ. 조사 목적 및 방법

1. 조사 목적 1
2. 조사 방법 2
3. 자료처리 및 분석 4

Ⅱ.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및 태도

1. 농업인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한 의식 변화 5
2. 농촌생활 수준의 향상 여부에 대한 의식 12
3. 농사 만족도 및 농촌거주에 대한 의식 22

Ⅲ. 농정 전반에 대한 농업인 인식

1. 농정 전반에 대한 평가 33
2.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한 의견 36
3. 농가부채 경감실태 및 WTO 협상 관련 의식 39
4. 협동조합 개혁·농작물재해보험·농촌 복지에 대한 견해 44

Ⅳ. 쌀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농업인 의식

1. 양정의 기본방향 전환에 대한 견해 47
2. 지역별 쌀값 하락 정도 49
3. 수매가 조정에 대한 의견 50
4. 2002년 쌀 재배면적 조정 여부 51
5. 논농업직불제 시행에 대한 평가 52
6.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 53

7. 쌀 소비 촉진방안에 대한 의견 ·····54

Ⅴ. 기타의견 및 건의사항 ·····56

Ⅵ. 요약 및 시사점 ·····62

부 록

「2001년 농업인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조사표 ·····67

참고 문헌 ·····79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지역별 분포 3
표 1- 2 연령별 분포 3
표 1- 3 경작규모별 분포 3
표 1- 4 학력별 분포 3
표 1- 5 영농경력별 분포 4
표 1- 6 주소득작목별 분포 4

제2장

표 2- 1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 6
표 2- 2 농업에 종사하며 느끼는 애로사항 8
표 2- 3 영농시 불만 사항 9
표 2- 4 정보 입수 경로 12
표 2- 5 농촌 생활수준 평가 13
표 2- 6 5년전 비교 농촌생활수준 평가에 대한 연도별 변화 ... 14
표 2- 7 미래의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전망 15
표 2- 8 5년후 농촌생활수준 전망에 대한 연도별 변화 15
표 2- 9 5년후 농촌과 도시생활 비교 전망 16
표 2-10 5년전 비교 농촌생활에 있어서 향상된 항목 18
표 2-11 5년전 비교 농촌생활에 있어서 나빠진 항목 19
표 2-12 5년전 비교 농촌생활 전반 20
표 2-13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견해 22
표 2-14 농업 종사 만족도 23
표 2-15 농업 종사 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24

표 2-16 농사와 다른 직업과의 비교 25
표 2-17 농촌 계속 거주 여부 26
표 2-18 농촌 거주 이유 27
표 2-19 이농 시기 28
표 2-20 농촌을 떠나는 이유 29
표 2-21 자녀들에 대한 농업 승계 의향 30
표 2-22 자녀에게 권장하고 싶은 직업 30

제3장

표 3- 1 정부가 추진한 농정 시책 부문별 평가 35
표 3- 2 2001년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여부 37
표 3- 3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전년대비 농업소득 감소 정도 37
표 3- 4 농산물 가격 불안정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 39
표 3- 5 농가 부채 경감 실태 40
표 3- 6 농가부채 감소 원인 41
표 3- 7 WTO 뉴라운드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 42
표 3- 8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반응 42
표 3- 9 WTO 농업 협상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분야 43
표 3-10 협동조합 개혁작업에 대한 평가 44
표 3-11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평가 45
표 3-12 농촌에 거주하면서 이용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시설 46

제4장

표 4- 1 쌀산업 정책 기본방향 전환 동의 여부 47
표 4- 2 중산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48
표 4- 3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으로 시급히 도입돼야할 정책 49
표 4- 4 2000년 대비 2001년 산지 쌀값 하락 정도(40kg 조곡기준) .. 50

표 4- 5 향후 추곡수매가격 결정에 대한 의견 51
표 4- 6 2002년 쌀 재배면적 조정 여부 52
표 4- 7 논농업직불제가 농가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53
표 4- 8 농지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의견 54
표 4- 9 쌀소비 촉진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55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항 변화 11
그림 2- 2 5년 전과 5년 후 농촌생활수준 평가와 기대 변화 ... 17
그림 2- 3 농사 만족도와 농업 대물림 의향 변화 32

Ⅰ. 조사 목적 및 방법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당해연도 농업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변화를 파악해 현장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해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실시하고 있다.

○ 「2001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는 농업인들의 농촌생활과 관련된 의식구조 변화와 함께, 현정부 출범 이후 농정변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평가,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농가경제 및 농가부채 변화실태,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반응, 농촌복지 정책과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업인들의 평가 등을 다루었다.

○ 특히, 2001년 농업분야 핵심 이슈로 등장했던 쌀값 하락과 양정전환 모색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 및 벼농사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를 조사에 포함하는 등 총 53개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조사 방법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번 조사는 지난 2001년 11월17일부터 12월15일까지 당연구원 현지통신원 2,063명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868건(회수율 42.1%)의 조사표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분석 대상자 분포

○ 분석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이 147명(17.1%)으로 가장 많아 전년과 같았고,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 응답자의 41.0%(35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작 규모별 분포는 1ha～1.5ha를 경작한다는 응답자가 22.9%(196명)로 가장 많았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4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영농경력별로는 대다수(99.4%)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주소득 작목별로는 수도작이 절반가까운 49.9%였으며 다음으로 과수 12.6%, 시설원예 10.3%, 축산 9.8% 순이었다[1].

○ 유효한 설문지 868건을 지역, 연령, 경작규모, 학력, 영농경력, 주소득작목별로 세분하여 집계한 자료는 아래 표(1-1～1-6)와 같다. 각 문항별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

[1] 조사대상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지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이들이 그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분포나 경작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이들의 의사가 반드시 전체 농업인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표 1-1.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인원수	92	58	65	130	97	147	131	126	16	862
비율	10.7	6.7	7.5	15.1	11.3	17.1	15.2	14.6	1.9	100.0

* 인천은 경기, 부산·울산은 경남, 광주는 전남, 대구는 경북으로 편입

표 1-2.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계
인원수	1	17	199	194	353	97	861
비율	0.1	2.0	23.1	22.5	41.0	11.3	100.0

표 1-3. 경작규모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없다	1,500평 미만	1,500～3,000평	3,000～4,500평	4,500～6,000평	6,000～9,000평	9,000평 이상	계
인원수	7	43	159	196	155	148	149	857
비율	0.8	5.0	18.6	22.9	18.1	17.3	17.4	100.0

표 1-4. 학력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무학	한학	국졸	중졸	고졸	대졸(퇴)이상	계
인원수	1	15	104	264	400	77	861
비율	0.1	1.7	12.1	30.7	46.5	8.9	100.0

표 1-5. 영농 경력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5년 이내	5~10년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인원수	2	3	102	755	862
비율	0.2	0.3	11.8	87.6	100.0

표 1-6. 주소득 작목 분포

단위: 명, %

구 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계
인원수	427	108	59	84	88	70	20	856
비율	49.9	12.6	6.9	9.8	10.3	8.2	2.3	100.0

3. 자료처리 및 분석

○ 2001년 조사결과 분석은 회수된 조사표의 일부문항에 대한 무응답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SAS 통계 패키지와 엑셀 통계프로그램에 의해 전산처리 하였다.

○ 분석 방법은 전반적인 동향을 알아보는 빈도분석과 농정평가와 쌀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견해 등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경작규모·학력·농사경력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응답자의 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계층간 비교분석 하였다.

○ 비교 분석 연도인 '93년 이후 조사결과는 2001년 조사와 일관성 있게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문항만을 대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Ⅱ.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및 태도

1. 농업인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한 의식 변화

○ 농업인들의 농사와 관련한 관심과 애로사항, 그리고 불만사항에 대한 의식변화 조사를 통해 조사 당해연도의 농업여건을 가늠하고 농업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농업인들의 농사와 관련한 정보 입수 경로도 파악하여 정보화 촉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도 참고 하고자 하였다.

1.1. 관심 사항 변화

○ 2001년 농업인들은 농사와 관련하여 '농산물 가격'(33.3%) 변동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쌀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영향으로 2000년도에 다섯 번째 관심사였던 '추곡수매'가 그 다음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비율도 8.5%에서 25.4%로 16.9%p나 증가하였다.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도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 영향으로 여전히 높았으며(17.4%), '영농자금·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정부의 농가부채경감대책으로 부채 문제가 다소 해소되면서 관심도도 2000년보다 약간 줄어든(13.2%)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농작물 병충해,기상·기후'(4.0%), '농촌인력부족'(3.0%)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1)

○ 농사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가졌던 관심사항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농산물 가격에 대한 관심도는 '95년 이후 2001년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97년 이후 2000년도까지 10% 미만의 관심도를 나타냈던 추곡수매 문제가 2001년 조사에서는 25.4%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반면, 영농자금과 농가부채에 대한 관심도는 22.7%에서 13.2%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2-1.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 (복수 응답)

단위: 명, %

구 분/년도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농산물 가격	571(33.3)	35.4	28.8	27.8	31.6	31.1	27.5	19.3	12.7
추곡수매	435(25.4)	8.5	6.1	6.6	7.3	20.2	16.2	21.5	16.0
영농자금·농가부채	226(13.2)	22.7	18.9	23.1	9.6	7.9	13.0	11.7	9.5
농산물 수입개방	298(17.4)	14.6	10.1	5.7	17.3	16.4	14.9	20.7	35.1
농촌지역개발	23(1.3)	2.2	3.3	3.7	15.0	4.8	6.1	6.4	4.0
농촌 인력	53(3.0)	4.3	6.7	4.0	16.2	9.2	9.6	8.1	4.5
농작물병충해, 기후	69(4.0)	8.6	19.2	20.4	2.5	3.1	7.3	6.0	11.4
농기계 등 농자재	5(0.3)	1.4	2.2	4.3	0.2	1.2	1.1	1.3	1.0
영농시설 현대화*	8(0.4)	0.3	1.9	1.4	0.1	2.0			
농지문제	27(1.6)	2.0	2.8	3.0	0.2	4.1	5.5	5.6	5.9
합 계	1,715(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6년 이후 조사

○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은 농사와 관련해 '농산물 가격' '추곡수매' '영농자금·농가부채' '농산물 수입개방'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지문제나 영농시설 현대화, 농자재, 농촌지역개발, 농촌인력 문제 등은 조사 당해년도 농업여건에 따라 관심 사항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그 관심 정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애로 사항 변화

○ 2001년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3%가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고 답해 쌀값 하락을 비롯한 채소류와 과일값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 해 였음을 반영하였다. 이밖에 '영농자금과 농가부채 문제'(15.1%), '기상, 기후조건'(15.0%), '농촌 인력문제'(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2)

○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응답 비율이 10%p 정도 상승해 쌀값 하락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반면, '농가부채 문제'는 지난해 24.4%에서 15.1%로 떨어져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 등 대외개방 압력이 한층 강화된 2001년도에도 농업인들은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 비율(4.4%)을 보여 개방에따른 피해 의식을 개별농가 단위에서는 아직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농업에 종사하며 느끼는 애로사항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94년에는 '기상·기후조건', '95년에는 '농촌인력', '96년과 '97년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98년과 '99년에는 '기상, 기후'라고 답하였고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는 다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고 답했으며, 그 응답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대체적으로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기후 조건'과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농산물값 불안정'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최근들어 농산물 가격변동에 대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농업에 종사하며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명, ( )는 %

구 분/년도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농산물 가격 불안정	409(47.3)	37.1	16.6	17.3	43.9	39.5	25.3	19.1	19.4
영농자금 · 농가부채	131(15.1)	24.4	22.7	23.5	20.3	15.3	16.0	13.6	13.8
농촌인력문제	123(14.2)	12.7	13.4	8.8	18.9	30.5	30.1	24.5	22.4
농작물병충해*	21(2.4)	5.0	5.5	9.0	6.7	2.8			
기상,기후조건	130(15.0)	16.6	37.9	38.7	5.7	6.1	21.8	34.3	33.9
수입개방	38(4.4)	2.6	2.0	1.0	3.4	4.5	2.0	4.1	7.9
농사정보 부족**	9(1.0)	1.2	0.9	0.7					
농지문제**	4(0.5)	0.4	0.9	0.9					
기타	0(0.0)	0.0	0.0	0.1	1.2	1.3	4.7	4.4	2.6
계	865(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6년 이후 조사. ** '98년 이후 조사

1.3. 영농시 불만 사항 변화

○ 2001년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느꼈던 부분은 '97년 이후 2001년에도 '농산물 가격 불안정'(21.7%)'라고 응답했고, 그 외에 '농산물 수입개방'(12.9%)과, '정부의 농업인식'(12.2%), '농사의 수익성'(11.6%), 순으로 응답했으며, 그 비율도 전년보다 높아지고 있다.

○ 반면, 지난해 10.3%로 세 번째 불만사항으로 지적했던 '농가부채·영농자금'에 대해서는 6.0%로 전년보다 4.3% 줄어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 등으로 농가부채에 대한 불만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표 2-3)

표 2-3. 영농시 불만 사항(복수응답)

단위: 명, ( )는 %

구 분	응답합계	응 답 1	응 답 2
농산물 가격	365(21.7)	311(37.0)	54(6.4)
농산물 수입개방	216(12.9)	44(5.2)	172(20.5)
농가부채 · 영농자금	101(6.0)	34(4.0)	67(8.0)
정부의 농업인식	204(12.2)	95(11.3)	109(13.0)
농사 수익성	194(11.6)	62(7.4)	132(15.8)
농촌일손	109(6.5)	51(6.1)	58(6.9)
농자재 수급 및 가격	41(2.4)	6(0.7)	35(4.2)
농가 자금사정	65(3.9)	55(6.5)	10(1.2)
농산물 유통	83(4.9)	37(4.4)	46(5.5)
일반 국민의 농업인식	54(3.2)	12(1.4)	42(5.0)
소득향상	47(2.8)	41(4.9)	6(0.7)
기 타*	200(11.9)	93(11.1)	107(12.8)
합 계	1,679(100.0)	841(100.0)	838(100.0)

* 기타항목은 「교육환경」, 「농민의 농업애착」, 「농업의 중요성」 등 응답자수가 적은 9개 항목을 합산한 것임.

1.4. 농업인들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 변화 경향

○ 농업인들은 농사와 관련해 최근 수년간 '농산물 가격' '추곡수매' '영농자금·농가부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는데, 2001년에는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와 영농자금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2001년 33.3%로 전년(35.4%)보다 약간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고, 이같은 추세는 최근 7년간 계속되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96년까지 20%대의 관심을 보였으나, '9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10% 이하의 관심도

를 유지하다 2001년에는 쌀 값이 하락하고 수매가 조정 문제가 논의되면서 급격히 관심도가 높아져 다시 '96년 이전 수준으로 증가해 25.4%를 기록하였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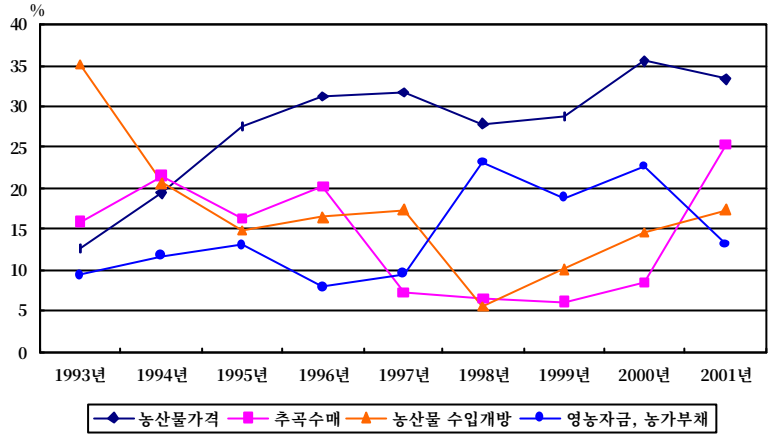
○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도 '93년 UR 출범으로 35.1%의 관심도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지다 WTO 협상이 논의되고 FTA 협상 등이 추진되면서 '98년 이후 다시 매년 4~5%p씩 증가해 WTO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에는 17.4%를 기록하였다.

○ 영농자금과 농가부채 문제는 '98년 IMF 체제 출범이후 투자위축과 교역조건이 악화돼 20%대의 관심도를 나타냈으나, 2001년에는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대책 시행으로 13.2%를 기록해 전년보다 10%p 낮아졌다.

○ 농사 애로사항으로도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가장 많이 꼽은 것을 비롯해 '영농자금과 농가부채', '기상, 기후 조건' 등의 순으로 조사된 반면, 농촌일손 부족, 농지문제, 영농시설 현대화, 농자재 등과 같은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반응을 종합해 보면, '94년 이후 농업생산은 증가해 연평균 5.7%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과잉생산 기조와 수입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이 지속돼 농업소득은 연평균 3.7%씩 후퇴했다는 점이 농업인들에게 농산물 생산성 향상 보다 농가 수취가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림 2-1.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항 변화 (연도별)



1.5. 농업인들의 정보 입수 경로 및 매체의존 경향

○ 농업인들의 정보입수 경로와 매체의존 경향을 조사한 결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주로 '텔레비젼'(66.7%)과 '일반신문'(15.8%), '농업관련 신문잡지'(12.7%)를 통해 얻고 있고, 농사와 관련한 정보는 '농업관련 신문 및 잡지'(64.5%)와 '텔레비젼'(15.2%), '영농교육'(8.9%)에 의해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 수년간 농업인들의 정보입수 경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 또, 최근 농업·농촌 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PC통신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농업인이 '세상소식'은 0.7%, '농업소식'은 0.9%에 그쳐 전년보다(각 0.0%, 0.6%)약간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 정보 입수 경로

단위: 명, ( )는 %

구 분	세상소식	농업소식
일반신문	137(15.8)	20(2.3)
농업관련 신문 잡지	110(12.7)	559(64.5)
라디오	24(2.8)	22(2.5)
텔레비전	578(66.7)	132(15.2)
영농교육	6(0.7)	77(8.9)
홍보용책자	1(0.1)	11(1.3)
가족, 이웃주민, 반상회	4(0.5)	38(4.4)
인터넷·PC통신 등	6(0.7)	8(0.9)
합 계	866(100.0)	867(100.0)

○ 이와같은 경향으로 볼 때 농업인들은 텔레비전을 통한 정보획득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사와 관련한 정보는 관련 전문지나 잡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지만 이는 텔레비전에서 농업관련 정보 제공이 미미 하다는 것과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텔레비전을 통한 농정 홍보와 정보 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농촌생활 수준의 향상 여부에 대한 의식

○ 농업인들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비해 농촌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농촌생활의 미래는 중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2.1.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평가

○ 2001년 농촌의 생활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어떻느냐는 질문에 응

답자 10명중 2명은(20.8%) '5년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합산)'고 응답했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48.7%) 응답자는 '못해졌다(약간 못해짐, 매우 못해짐 합산)'고 응답해 2000년보다 향상되었다는 응답자가 전년에 비해 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99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표 2-5)

○ 전년(2000년) 생활과 비교해서는, 농촌의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매우 좋아짐 포함)'는 응답이 9.6%로 역시 2000년보다 3.6p% 상승했으나 '9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반면 '못해졌다(약간 못해짐, 매우 못해짐 합산)'는 응답은 51.6%에 달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2001년 농촌생활이 전년보다 못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 같은 결과는, '99년 이후 회복세에 있던 경기가 2000년 하반기들어 다시 침체돼 농업분야 투자 위축과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낮아진 이후, 2001년 들어서도 그 여파가 미쳐 농업인들의 만족감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농촌 생활수준 평가

단위: 명, ( )는 %

구 분	5년전 대비	전년 대비
매우 좋아짐	25(2.9)	9(1.0)
약간 좋아짐	155(17.9)	74(8.6)
마찬 가지임	265(30.6)	335(38.8)
약간 못해짐	252(29.1)	321(37.1)
매우 못해짐	170(19.6)	125(14.5)
합 계	867(100.0)	864(100.0)

○ 5년전과 비교한 농촌생활 수준에 대해 농업인들의 평가가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연도별로 살펴보면, '좋아졌다(매우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포함)'는 응답이 '93년 50.3%로부터 시작해 '96년까지 50%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97년에는 40.6%로 떨어진 후 IMF가 시작된 '98년에 26.8%까지 하락하였다.(표 2-6)

표 2-6. 5년전 비교 농촌생활수준 평가에 대한 연도별 응답 변화

단위: 명, %

구 분/년도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매우 좋아졌다	25(2.9)	1.4	2.9	3.9	6.4	7.8	7.4	8.0	7.6
약간 좋아졌다	155(17.9)	13.7	28.5	22.9	34.2	45.9	52.5	51.8	42.7
향상 (소 계)	180(20.8)	15.1	31.4	26.8	40.6	53.7	59.9	59.8	50.3
마찬가지이다	265(30.6)	31.6	36.8	26.7	28.1	30.8	29.6	28.9	33.3
약간 못해짐*	252(29.0)	27.7	22.7	30.5					
저하되었다	170(19.6)	25.6	9.1	16.0	31.1	15.5	10.5	11.3	16.5
합 계	867(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998년 농업인 의식구조조사 신설 항목

○ 경기가 다시 회복된 '99년도에 31.4%로 소폭 상승했으나 2000년에 농업여건이 다시 악화되면서 15.1%로 전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01년에는 다시 소폭 상승해 20.8%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2. 농업인들의 미래 농촌생활 수준 전망

○ 미래 농촌 생활을 농업인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앞으로 5년 후의 농촌 생활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로 전년보다 4.8%p가 감

소 하였다.(표 2-7)

○ 반면, '현재보다 낙후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81.0%로 전년보다 16.7%p나 증가해 5년후 농촌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98년 IMF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큰폭으로 벌어지고 있다.(표 2-8)

표 2-7. 미래의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는 %

구 분	5년 후 생활 수준	2002년 생활 수준
현재보다 향상	38(4.4)	15(1.7)
현재와 마찬가지	126(14.6)	170(19.6)
현재보다 낙후	699(81.0)	681(78.6)
합 계	863(100.0)	866(100.0)

표 2-8. 5년후 농촌생활수준 전망에 대한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 분/년도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현재보다 향상	38(4.4)	9.2	23.1	31.4	20.0	22.3	29.9	21.6
현재와 마찬가지	126(14.6)	25.7	38.0	36.9	27.5	37.3	36.9	33.1
현재보다 낙후	699(81.0)	65.1	38.9	31.7	52.5	40.3	33.2	45.4
합 계	863(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02년 농촌의 생활이 2001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7%에 그쳐 전년보다 3.1%p 낮아진 반면, 78.6%의 응답자는 '현재보다 낙후될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전년보다 17.2%p나 높아져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농업인들의 중단기 전망은 매우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농촌과 도시 생활 격차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5년 후 농촌의 생활이 도시와 비교해서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로 나타났고, 5.9%는 '도시만큼 살게 될 것'으로, 거의 대다수인 93.1%는 '도시보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 이었고 그 비율도 전년보다 8.3%p 증가하였다.(표 2-9)

표 2-9. 5년후 농촌과 도시생활 비교 전망

단위: 명, ( )는 %

구 분	응 답 자 수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임	9(1.0)
도시만큼 살게 될 것임	51(5.9)
도시보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임	808(93.1)
합 계	86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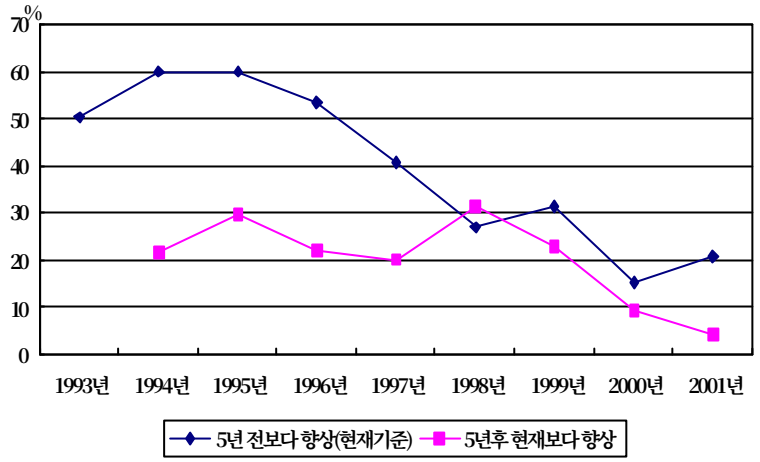
2.3. 농촌생활 수준 인식에 대한 변화 경향

○ 이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많은 농업인들이 앞으로 5년 후나 1년 후의 농촌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와의 생활수준 격차도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도별로도 각년도 조사시점 기준으로 5년전보다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95년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세에 있으며, 2001년 약간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그림 2-2. 5년 전과 5년 후 농촌생활수준 평가와 기대 변화



○ 5년후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99년까지 20~30%대를 유지하다 2000년 9.2%로 떨어진 이후 2001년에는 4.4%로 다시 낮아져 농업인들의 미래 농촌생활 수준 전망은 최근들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이같은 평가는 '98년 IMF 이후 경기 침체로 농촌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데다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가 심화된데 따른 결과로 보이며, 특히 미래에 대한 전망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부문별 인식

○ 이같은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5년전에 비해 2001년 농촌의 생활수준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농업인들(20.8%)에게 나아진 것을 부문별로 복수 응답케 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34.2%가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29.0%가 '농사방법과 기술 등 영농편의'를, 15.1%는 '문화·복지시설'을 꼽았으며, 이밖에 '교육환경' 2.6%, '영농규모 확대' 2.2%, '농가의 자금사정' 2.0% 순으로 나타났다.(표 2-10)

○ '농민의 농업 애착'이나 '농업의 중요성'과 같은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각 0.8%, 1.3%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여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표 2-10. 5년전 비교 농촌생활에 있어서 향상된 항목(복수응답)

단위: 명, ( )는 %

구 분	응 답 합 계	응 답 1	응 답 2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	535(34.2)	196(24.6)	339(44.1)
농사방법과 기술	454(29.0)	406(50.9)	48(6.3)
문화복지시설	234(15.0)	134(16.8)	100(13.0)
농산물 유통	30(1.9)	7(0.9)	23(3.0)
교육환경	41(2.6)	7(0.9)	34(4.4)
자녀교육	28(1.8)	4(0.5)	24(3.1)
농업의 중요성	21(1.3)	4(0.5)	17(2.2)
소득향상	28(1.8)	9(1.1)	19(2.5)
농민의 농업애착	13(0.8)	2(0.3)	11(1.4)
농가의 자금사정	31(2.0)	7(0.9)	24(3.1)
영농(농지)규모	35(2.2)	1(0.1)	34(4.4)
기타*	115(7.3)	20(2.5)	95(12.3)
합 계	1,565(100.0)	797(100.0)	768(100.0)

* 기타항목은 「공동생활문화」, 「정부의 농업인식」, 「이웃간 대화」, 「농외소득기회」 등 응답자수가 적은 11개 항목을 합산한 것임.

○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사기술, 문화복지 시설은 예년에 비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환경과 농가의 자금사정에는 진전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같은 경향은 최근 수년내 큰 변화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 2001년 농촌생활을 5년전과 비교해 나빠졌다고 느끼는 응답자에게 어느 부문이 나빠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복수 응답케한 결과, '99년에 9.7%의 응답률을 보였고 2000년에는 10%p가 증가해 19.9%의 응답률을 보였던 '농산물 가격'을 가장 많이(21.0%) 꼽았으며, '99년 가장 많이 꼽았던 '농가부채·영농자금'은 2000년에 13.6%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가 2001년에는 8.6%로 다시 세 번째 순위로 낮아져 부채문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

표 2-11. 5년전 비교 농촌생활에 있어서 나빠진 항목(복수응답)

단위: 명, ( )는 %

구 분	응 답 합 계	응 답1	응 답 2
농가부채·영농자금	136(8,6)	50(6,3)	86(11,0)
농촌일손	133(8,4)	67(8,5)	66(8,4)
농산물 가격	331(21,0)	229(29,0)	102(13,0)
농산물 수입개방	101(6,4)	22(2,8)	79(10,1)
농사 수익성	168(10,6)	51(6,4)	117(14,9)
농가 자금사정	125(7,9)	94(11,9)	31(3,9)
정부의 농업인식	94(6,0)	34(4,3)	60(7,6)
농외소득기회	52(3,3)	24(3,0)	28(3,6)
소득향상	112(7,1)	105(13,3)	7(0,9)
농자재 수급 및 가격	20(1,3)	1(0,1)	19(2,4)
농민의 농업애착	60(3,8)	8(1,0)	52(6,6)
*기타	244(15,5)	106(13,4)	138(17,6)
합 계	1,576(100,0)	791(100,0)	785(100,0)

* 기타항목은 「자녀교육」, 「교육환경」, 「이웃간 대화」, 「일반국민의 농업의식」 등 응답자 수가 적은 11개 항목을 합산한 것임.

○ 전년도 세 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농사 수익성'(10.6%)이 두 번째 순위를 기록해 농업인들은 대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관련한 항목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농촌일손 문제가(8.4%)로 전년보다 응답 비율과 순위가 약간 상승했으며 '농가 자금사정'(7.9%), '소득향상'(7.1%), '농산물 수입개방'(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2. 5년전 비교 농촌생활 전반

단위: %

구 분	매우좋아짐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나빠짐	평균(점)
농사방법과 기술	54.5	36.3	8.6	0.6	0.0	4.4
문화복지시설	22.9	49.2	24.5	2.7	0.7	3.9
소득향상	5.7	18.2	36.8	25.3	14.0	2.8
교통 등 생활환경	39.1	44.8	14.1	1.5	0.5	4.2
교육환경	9.6	37.1	35.5	11.0	6.8	3.3
농가 자금사정	5.2	18.8	31.3	27.1	17.6	2.7
농산물 가격	1.2	5.9	19.1	40.6	33.3	2.0
농촌일손	1.4	3.4	18.9	45.5	30.8	2.0
자녀교육	5.3	26.8	39.7	17.9	10.2	3.0
농외소득기회	2.1	10.6	31.9	33.4	22.0	2.4
영농(농지)규모	4.4	33.3	45.5	13.2	3.6	3.2
농산물 유통	4.2	26.6	37.3	23.1	8.7	2.9
농사 수익성	1.3	7.8	25.4	36.5	29.0	2.2
농가부채 · 영농자금	2.5	12.6	26.3	33.6	25.0	2.3
농업중요성	5.3	13.8	27.0	29.5	24.5	2.5
공동생활문화	5.0	28.6	40.3	17.9	8.2	3.0
이웃간대화	4.2	25.6	38.2	23.2	8.8	2.9
정부의 농업인식	1.2	5.5	20.0	36.3	37.0	2.0
국민의 농업인식	2.1	7.5	23.2	41.8	25.3	2.2
농산물수입개방	4.5	6.4	15.9	29.3	43.9	2.0
농자재수급및가격	2.2	13.6	32.7	33.4	18.2	2.5
농민의 농업애착	3.3	8.0	20.6	32.1	36.0	2.1

○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5년 전과 비교해 좋고 나쁨을 평가하게 한 결과는 (표 2-12)와 같음. 이 표에서는 편의상 5년 전에 비해 '매우 좋아짐'은 5점, '좋아짐'은 4점, '보통'이면 3점, '나빠짐'은 2점, '매우 나빠짐'은 1점을 주어 가중평균을 내었다.

○ 그 결과 좋아진 부분은 '농사방법과 기술'(4.4점), '교통 등 생활환경'(4.2점) 등이 꼽혔고, '문화복지시설'(3.9점), '교육환경'(3.3점), '영농규모 확대'(3.2점), '자녀교육'(3.0점) 등은 보통으로 조사된 반면, '농촌일손', '농산물 가격', '농산물 수입개방', '정부의 농업인식' 등은 평균 2.0점으로 나빠진 항목으로 나타났다.(표 2-12)

○ 이밖에도 '국민의 농업 인식', '농민의 농업 애착', '농사 수익성' '농자재 수급 및 가격' 등이 평균(3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전반적으로는 전년과 비교해 큰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5. 국가경제에서의 농업에 대한 인식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하다(매우 중요 포함)'고 생각하는 농업인은 79.0%로 나타나 지난해 보다 비율이 약간 낮아졌으나 대다수의 농업인이 여전히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 '중요치 않다(다른 산업에 비해 중요치 않음 포함)'고 생각하는 농업인의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17.6%에 그쳤으며, '국가경제에서 전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13)

표 2-13.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 분	응 답 자 수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	378(43.8)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편	304(35.2)
다른 산업에 비해 중요치 않음	152(17.6)
국가 경제에서 전혀 중요치 않음	30(3.4)
합 계	864(100.0)

3. 농사 만족도 및 농촌거주에 대한 의식

○ 농업인들은 직업으로써의 농사에 대해 얼마나 만족해하고 있는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 및 직업관과 생활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1. 농업인들의 농사 만족도

○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응답자는 '99년 21.4%에서 2000년에는 12.6%로 절반가량 낮아졌다가 2001년에는 다시 9.9%로 떨어짐으로써 최근 수년사이 농사 만족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 '불만족하다(매우 불만포함)'는 응답자는 '99년 30.2%에서 2000년에는 48.6%로 크게 증가했고, 2001년에는 다시 54.4%로 늘어 농업인 절반정도는 농사에 대해 불만족 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한 평가를 유보한 '그저 그렇다'고 응답

한 농업인은 35.8%로 나타났다.(표 2-14)

○ 농사 만족도를 농사경력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구분해 두 계층간 경향을 비교해 본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1.7%로 20년 미만 경력을 가진 농업인(1.0)보다 높았으나, 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불만(매우불만 포함)'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52.3%로 20년 이상 경력자(54.8%) 보다 약간 낮게 조사되었다.

표 2-14. 농업 종사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농사 경력별		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매우 만족한다	1.0	1.7	14(1.6)
대체로 만족한다	11.2	7.8	70(8.3)
그저 그렇다	35.5	35.7	302(35.7)
약간 불만이다	29.0	29.5	249(29.4)
매우 불만이다	23.3	25.3	212(25.0)
응답자수(명)	107	740	847(100.0)

○ 이와 같은 농업 종사 만족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93년부터 '96년까지 10%대에 머물던 농업종사 만족도가 '97년 이후 20%대로 상승해 '99년까지는 이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0년에 다시 10%대로(12.6%) 떨어진 후 2001년에는 9.9%로 떨어짐으로써 농사에 만족하는 농업인은 10명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5)

표 2-15. 농업 종사 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명, ( )는 %

구 분/년도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매우 만족한다	14(1.6)	1.4	3.2	4.0	3.4	1.7	1.7	1.1	1.8
대체로 만족한다	70(8.3)	11.2	18.2	25.1	18.0	10.8	8.6	13.7	8.1
만족 소계	84(9.9)	12.6	21.4	19.1	21.4	12.5	10.3	14.8	9.9
그저 그렇다	302(35.7)	38.8	48.3	43.4	43.1	48.4	48.3	44.2	33.8
불만이다	249(29.4)	28.7	21.1	20.7	24.7	26.0	27.3	41.0	56.2
매우 불만이다*	212(25.0)	19.9	9.1	6.8	10.9	13.1	14.2		
합 계	847(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995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시 신설항목

○ 2001년 농업종사 만족도가(매우만족, 대체로만족) 최근 5년새 최저치를 기록하며 '93년 UR협상 타결 시점으로 돌아간 것은, 지난해 쌀값 등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과 뉴라운드 출범, 중국의 WTO 가입 등이 이어지면서 농사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2. 농업인들의 직업관 및 타직업과의 비교

○ 농사를 짓는 것과 다른 직업에 종사했을 때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더 유리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1.9%의 응답자 만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고 답해 전년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반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1.0%는 '다른 직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답하였고, 30.3%는 '본인하기에 달렸다'고 답해 본인 노력여하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것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표 2-16)

○ 농사를 짓는 것이 다른 직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응답자를 농사 경력별로 살펴본 결과는 20년미만 농업인이 57.0%, 농사경력 20년 이상이 61.5%로 농사경력이 많을 수록 불리하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농사가 다른직업과 비교해 유리하다는 응답자도 20년 미만 농업인이 2.8%로 20년 이상 농업인(1.7%)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농사경력이 짧을 수록 농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6. 농사와 다른 직업과의 비교

단위: 명, %

구 분	농사 경력별		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농사가 유리	2.8	1.7	16(1.9)
다른 직업과 비슷하다	6.5	6.8	58(6.8)
다른 직업에 비해 불리하다	57.0	61.5	520(61.0)
본인하기에 달렸다	33.7	29.9	259(30.3)
응답자수(명)	107	746	853(100.0)

3.3. 농촌 계속거주 및 이농 의향

○ 앞으로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느냐는 질문에는 2000년 80.4%의 응답자가 '농촌에 계속살겠다'고 답한 반면 2001년에는 70.0%로 10.4%p 낮아졌고, 10.4%의 농업인은 '농촌을 떠나겠다'고 답하였다.

○ 이밖에 16.9%는 농촌을 떠날런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떠났다가 돈벌어 돌아오겠다'는 농업인은

2.7%로 조사되었다. (표 2-17)

○ 이를 농사 경력별로 살펴보면, '농촌을 떠나겠다'는 비율은 경력별 차이가 없었으나,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농업인은 경력 20년 이상이 20년 미만보다 10%p 높게 나타났고, '모르겠다'고 결정을 유보한 농업인은 20년 미만이(24.3%) 20년 이상(15.9%)보다 10%p 정도 높게 나와 농사 경력이 짧을수록 이농을 고려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7. 농촌 계속 거주 여부

단위: 명, %

구 분	농사 경력별		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속 살려고 함	61.7	71.2	599(70.0)
농촌 떠날 예정	10.3	10.4	89(10.4)
떠났다 돈벌어 돌아 오겠음	3.7	2.5	23(2.7)
모르겠음	24.3	15.9	145(16.9)
응답자수(명)	107	749	856(100.0)

○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자의 농촌 계속 거주 이유에 대해서는 52.7%가 '이제까지 농촌에 살아 모든 생활 근거가 농촌에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3.3%는 '나이가 많아서 직업을 바꾸기 어려워'라고 응답하였다.(표 2-18)

○ '농사 이외에 다른 기술이 없어서'라는 응답자도 5.1%나 돼 상당수의 농업인이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이유가 긍적적인 측면 보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하지만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10.2%,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2.7%,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으므로' 2.2%로 조사돼 일부 농업인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촌을 고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8. 농촌 거주 이유

단위: 명, ( )는 %

구 분	응 답 자 수
농촌생활 환경이 좋아서	6(1.0)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60(10.2)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으므로	13(2.2)
모든 생활근거가 농촌에 있으므로	310(52.7)
농사이외에 다른 기술이 없어서	30(5.1)
나이가 많아서 직업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137(23.3)
도시에서 살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서	9(1.5)
심리적인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6(1.0)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16(2.7)
기 타	1(0.2)
합 계	588(100.0)

○ 이농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농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농하겠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62.8%로 전년(53.0%)보다 10%p 정도 증가해 많은 농업인은 이미 구체적인 이농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2-19)

○ 그러나, 농촌을 떠나겠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아직 이농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농업인이 31.8%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개방 속도나 농업의 여건 변화 등이 이들을 계속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같은 결과를 농사 경력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농 의사를 갖고 있는 농업인중 농사 경력이 20년 이하인 농업인 절반 가까이(43.7%)가 3년 이내에 이농할 것으로 나타났고, 20년 이상 경력자는 36.2%가 3년 이내에 이농을 계획하고 있어 농사 경력이 짧을수록 이농 시기도 빨리 잡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농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 분포는 계층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2-19. 이농 시기

단위: 명, %

구 분	농사 경력별		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1년 이내	0,0	3,2	3(2,7)
3년 이내	43,7	33,0	38(34,6)
5년 이내	12,5	27,7	28(25,5)
10년 이내	12,5	4,2	6(5,4)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31,3	31,9	40(31,8)
응답자수(명)	16	94	110(100,0)

○ 전체 응답자중 이농을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떠났다 돈벌어 돌아오겠음 포함)은 13.1%였는데 , 이들의 이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서'란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아 농업인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2-20)

○ 그 외에 '직업을 바꿔 돈을 벌기 위해'라고 답한 응답자도 31.1%에 달했으며 '농촌 노동력 부족 등 농사짓는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이농하겠다는 응답자는 8.0%,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농하겠다는 응답자는 5.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0. 농촌을 떠나는 이유

단위: 명, ( )는 %

구 분	응 답 자 수
자녀 교육을 위해	6(5.4)
직업 변경해 돈을 벌기 위해	36(31.1)
농촌 주거환경 열악해지고 변해	1(0.9)
노동력 부족 등 농사짓는 여건이 차츰 어려워져	9(8.0)
농사규모를 늘려갈 전망이 없어서	1(0.9)
자녀들이 도시에 정착해 있어	1(0.9)
농사 이외에 할만한 작업이 없어서	5(4.5)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워 질 것 같아	53(47.3)
기 타	0(0.0)
합 계	112(100.0)

3.4. 농업 승계 의향과 자녀에 대한 기대

○ 한편, 자녀들에게 농업을 대물림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2.5%에 그쳐 지난해(3.5%)보다 낮아진 반면, '다른 직업을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42.0%로 전년(35.1%)보다 높아져 자녀에 대해 농사를 대물림 하겠다는 농업인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1)

○ 이밖에, 절반을 상회하는 55.5%의 농업인은 여전히 '자녀의 뜻대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많은 농업인이 자녀들의 재능이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같은 결과를 주소득 작목 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농업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농가는 축산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다른직업을 권장하겠다는 농가는 노지채소 재배농가가, 자녀의 뜻대로 하겠다

는 개방적인 의사는 수도작 농가 계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이같은 경향에는 계층간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21. 자녀들에 대한 농업 승계 의향

단위: 명, ( )는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농업 적극 권장	1.5	3.8	3.6	6.2	2.3	0.0	11.7	21(2.5)
다른직업 권장	38.8	45.7	50.0	40.7	46.5	44.9	41.2	346(42.0)
자녀의 뜻대로	59.7	50.5	46.4	53.1	51.2	55.1	47.1	457(55.5)
응답자수(명)	410	105	56	81	86	69	17	824(100.0)

표 2-22. 자녀에게 권장하고 싶은 직업

단위: 명, ( )는 %

구 분	응답자수
공무원 (일반 공무원 및 경찰 등)	118(41.0)
교직자 (교수, 교사 등)	21(7.3)
의료인 (의사, 약사 등)	3(1.0)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0.3)
종교인 (스님, 목사, 신부 등)	0(0.0)
예술인 (성악가, 화가, 연극인 등)	0(0.0)
연예/스포츠인 (가수, 탤런트, 프로축구 · 프로야구 선수 등)	0(0.0)
농축수산업 경영인 (농업 생산 및 가공, 유통 종사자 등)	36(12.5)
군인 (장기하사, 장교 등 직업군인)	0(0.0)
회사원 (일반 회사의 평범한 직장인)	30(10.4)
엔지니어 (컴퓨터 및 건축 등 기술분야 종사자 등)	45(15.6)
기타	34(11.8)
합 계	288(100.0)

○ 농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전년도에 이어 안정적인 공무원(41.0%)을 꼽았고, 그 외에 엔지니어(15.6%), 농축수산업 경영인(가공, 유통종사자)(12.5%), 회사원(10.4), 교사 등 교직자(7.3%), 의료인(1.0%) 순으로 조사되어 부모들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2)

3.5. 농사 만족도와 영농승계 의향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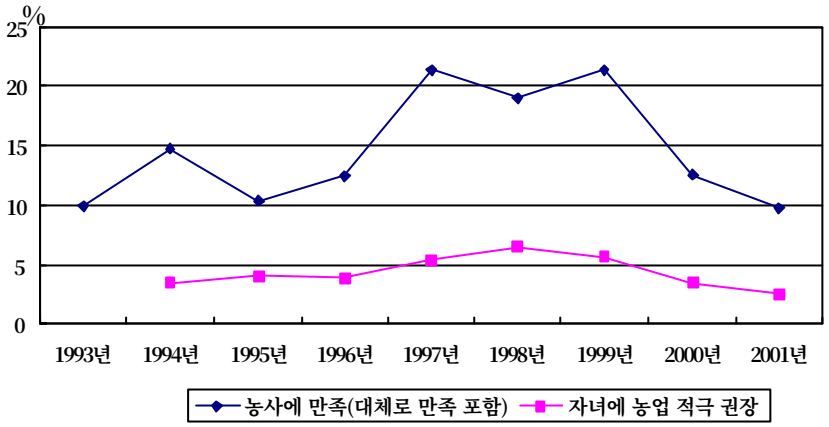
○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들의 농사 만족도는 '93년 UR협상 타결 이후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대체적으로는 '99년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0년 들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001년에는 9.9%를 기록함으로써 '93년 UR출범 당시 조사결과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 농업종사 만족도는 UR협상 타결로 농업의 장래성이 불투명해진 '93년 9.9%로 출발, '92년부터 '98년까지 7년간 42조원이 투입된 1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경영의 규모화·전문화 진전 등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고 정체상태에 있던 농업성장률이 빠른 성장세로 회복되면서 점차 높아져 '98년까지 대체적인 상승곡선을 나타내었다.(그림 2-3)

○ 그러나 IMF관리 체제 이후 다시 하락해 2000년에는 농업종사 만족도가 10%대(12.6%)를 기록하였고, 2001년에는 급기야 한자수로 떨어지며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자녀에 대한 농업승계 의향은 지난 수년간 5% 내외에서 완만하게 유지됐으며, 2001년에는 2.5%로 최근 7년간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2-3. 농사 만족도와 농업 대물림 의향 변화



○ 농사 만족도와 자녀에 대한 농업권장 여부는 대체적으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농사 승계 의향이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농사만족도는 해마다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Ⅲ. 농정 전반에 대한 농업인 인식

1. 농정 전반에 대한 평가

○ 농업인들이 현정부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각 부문별로 성과가 컸던점과 미진했던 점을 조사하였고, 이밖에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의견, 농산물 시장 개방 논의 진전에 따른 농업인들의 의식변화 등을 살펴 보았다.

1.1. 정부 농업정책중 성과가 컸던 점

○ 현 정부가 지난 4년동안 추진해 온 농업정책 중 가장 성과가 컸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복수로 응답케한 결과, '농가부채 및 농업인 연대보증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41.9%로 3년째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비율도 전년보다 10.5%p 증가해 농업인 10명중 4명은 현정부가 농가부채 해결에 가장 큰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3-1)

○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15.2%),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유통구조개혁'(11.8%). '농촌복지 대책'(10.2%), '농정조직 개편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혁'(8.5%) 순으로 집계되었는데, 전년에 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과 농촌복지대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긍정평가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밖에, '국제농산물 협상에 적극 대응'(3.2%),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4.5%), '해외시장 개척과 농산물 수출지원 확충'(4.6%) 등은 전년에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WTO 뉴

라운드 출범 등 농업분야 대외 협상에서 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던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같은 결과를 분석해 보면,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99년에 연대보증 해결을 위해 6조8,400억원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는 농업인 연대보증 및 연체채무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고, 2001년에도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부채 문제 해결 노력이 농업인들에게 어느정도 만족감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2. 정부 농업정책중 성과가 미흡했던 점

○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 중 미진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냐에 대한 질문에 복수 응답케 한 결과는, 응답자의 32.3%가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꼽았고, 다음으로 '국제농산물 협상에 적극대응'(20.0%),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유통구조 개혁'(13.3%) 등으로 나타나 정부 농업정책중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이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3-1)

○ 반면, 전년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농가부채 및 농업인 연대보증 문제해결'은 10.9%로 15.1%p가 떨어지면서 미진했던 정책순위에서도 네 번째로 낮아졌다.

○ 이밖에도 '해외시장 개척과 농산물 수출지원 미흡'(6.9%), '농정조직 개편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혁'(6.6%), '농촌복지 대책'(6.1%),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4.0%) 순으로 조사돼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과 농촌복지대책 등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 정부가 추진한 농정 시책 부문별 평가(복수응답)

단위: 명, ( )는 %

구 분	성과가 컸다	성과가 미흡했다
농정조직 개편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혁	123(8.5)	110(6.6)
농가부채 및 농업인 연대보증 문제해결	606(41.9)	181(10.9)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	220(15.2)	66(4.0)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유통구조 개혁	171(11.8)	222(13.3)
해외시장 개척과 농산물 수출지원 확충	66(4.6)	115(6.9)
국제 농산물 협상에 적극 대응	46(3.2)	334(20.0)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65(4.5)	538(32.3)
농촌 복지대책	148(10.2)	102(6.1)
합 계	1,445(100.0)	1,668(100.0)

1.3. 농업인들의 농정에 대한 평가 분석

○ 농업인들의 농정평가를 각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성과가 컸던 부문은 '농가 부채와 농업인연대보증 문제해결',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그리고 '농촌복지 대책' 등으로 나타났고, 특히, 농가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농업인들의 평가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반면, 미흡했던 부문은 '가격안정대책', '국제협상 대응', '직거래 확대 등 유통개혁' 등으로 나타나 현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농산물 유통개혁과 가격안정대책 등이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 등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2.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한 의견

○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들은 농사와 관련한 가장 큰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모두 '농산물 가격불안정'으로 꼽았고, 정부의 농업정책 중 가장 미진했던 부문도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으로 꼽아 최근 농산물 가격안정이 농업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농업인들은 가격안정대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2.1. 농산물 가격 하락이 농가 소득에 미친 영향

○ 2001년 쌀과 채소류, 배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8%가 '손실을 입었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주소득작목 계층별로 비교한 결과는 노지채소 농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을 비롯해 특작농가, 시설원예 농가, 수도작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 순으로 나타났다.(표 3-2)

○ 결과적으로, 축산농가가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1년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에도 불구하고 한우가격이 수소 5백kg 마리당 일부지역에서 5백만원을 호가하는 등 강세를 지속한 것을 비롯해, 돼지값도 2001년들어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축산물값의 전반적인 강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살펴본 결과는, 농업소득이 전년보다 10~20% 줄었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30%(32.5%), 30~40%(11.7%), 1~10%

표 3-2. 2001년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여부

단위: 명,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손실을 입었다	88.4	88.0	93.2	85.7	91.8	90.0	83.3	751(88.8)
손실을 입지 않았다	11.6	12.0	6.8	14.3	8.2	10.0	16.7	95(11.2)
응답자수(명)	422	108	59	84	85	70	18	846(100.0)

(8.9%)순으로 나타났으며, 40% 이상 감소되었다는 농업인도 8.8%에 달하였다.(표 3-3)

○ 40% 이상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응답자를 주소득 작목 계층별로 비교한 결과는, 노지채소 재배농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특작, 과수, 시설원예, 축산, 수도작 농가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전년대비 농업소득 감소 정도

단위: 명,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1~10%	9.6	8.6	7.3	4.2	14.1	6.3	6.2	67(8.9)
10~20%	46.1	31.2	16.4	44.4	20.5	28.6	56.3	285(38.0)
20~30%	31.1	31.2	29.1	36.1	42.3	34.9	12.5	244(32.5)
30~40%	10.2	17.2	23.6	4.2	11.5	11.1	12.5	88(11.7)
40% 이상	3.0	11.8	23.6	11.1	11.5	19.1	12.5	66(8.8)
응답자수(명)	373	93	55	72	78	63	16	750(100.0)

○ 2001년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도작 농가가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과 농업소득 감소에서 하위 그룹으로 집계된 것은, 조사 시점에서(11. 17~12. 15) 추곡수매 가격과 매입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정부의 추가수매 방침이 발표되는 등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대책이 마련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같은 결과가 조사시점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결과적으로, 2001년 농산물 가격하락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은 노지와 시설 채소재배 농가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은 계층은 수도작과 축산농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2. 농산물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의견

○ 농업인들에게 농산물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관측사업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투기작물 재배 억제'(24.7%), '지도사업 강화'(22.7%), '출하정보 제공 확대'(20.9%) 순으로 집계되었다.(표 3-4)

○ 이를 주소득 작목 계층간 비교해 보면, '관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축산농가에서, '출하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특작 농가에서, '지도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수도작 농가에서, '투기작물 재배를 억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시설원예 농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 또, 작목별로 가장 선호하는 가격안정 방안을 분석해 보면, 수도작농가는 '지도사업 강화', 과수농가는 '관측사업 강화', 노지채소

농가는 '투기작물 재배 억제', 축산농가는 '관측사업 강화', 시설원예농가도 '투기작물 재배 억제', 특작농가는 '출하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농산물 가격 불안정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는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관측사업 강화	23.2	31.8	12.5	39.7	29.4	19.1	35.0	216(25.8)
출하 정보제공 확대	20.0	19.6	23.2	18.1	15.3	35.3	25.0	175(20.9)
지도사업 강화	28.2	15.9	23.2	18.1	15.3	16.2	15.0	190(22.7)
투기작물 재배 억제	22.2	26.2	28.6	21.7	32.9	27.9	25.0	207(24.7)
기타	6.4	6.5	12.5	2.4	7.1	1.5	0.0	50(5.8)
응답자수(명)	419	107	56	83	85	68	20	838(100.0)

○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축산농가와 과수 농가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채소와 시설원예 등 밭작물 재배농가는 '투기작물 재배를 억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특작 농가는 '출하정보 제공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농가부채 경감실태 및 WTO 협상 관련 의식

○ 2001년 농가부채가 전년에 비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질문한 문항에 대해, 부채가 '전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3.9%로 나타났으

며, '전년 그대로'라는 응답은 48.6%, '전년보다 늘었다'는 응답은 37.5%로 나타나 감소했다는 농가보다 늘었다는 농가가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3-5)

○ 작목 계층간 분포는 '전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농가는 축산농가 계층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전년보다 늘었다'는 농가는 노지채소와 시설원예 농가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5. 농가 부채 경감 실태

단위: 명,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전년보다 줄었다	14.8	14.9	7.0	16.9	10.3	10.0	25.0	117(13.9)
전년 그대로다	52.9	48.6	38.6	49.4	36.8	45.7	45.0	409(48.6)
전년보다 늘었다	32.3	36.5	54.4	33.7	52.9	44.3	30.0	316(37.5)
응답자수(명)	418	107	57	83	87	70	20	842(100.0)

○ 농가부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전체 응답자의 13.9%) 농업인이 생각하는 부채 감소 원인은,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이라는 응답자가 14.7%였고, '경영비 절감 등 자구노력' 이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73.2%에 달해 부채가 줄었다는 농업인 10중 7명은 자구노력이 주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 작목 계층별로는 부채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축산농가가 감소원인으로도 정부의 부채경감대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반면 부채가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던 노지채소와 시설원예 농가는 자가노력을 부채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표 3-6. 농가부채 감소 원인

단위: 명, ( )는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	15.0	12.5	0.0	35.7	12.5	0.0	0.0	17(14.7)
경영비 절감 등 자구노력	75.0	81.3	100.0	42.8	87.5	71.4	66.7	85(73.2)
기타	10.0	6.2	0.0	21.4	0.0	28.6	33.3	14(12.1)
응답자수(명)	60	16	5	14	8	7	6	116(100.0)

○ 2001년 11월 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하고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농업분야 대외개방 압력이 한층 강화된 점을 감안해 이를 농업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 뉴라운드 출범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농업인 75.2%가 '큰 타격을 줄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약간 타격을 줄것'(18.2%)이라는 응답까지 더하면 대다수인 93.4%의 농업인이 뉴라운드 출범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0.9%)과 '큰 변화는 없을 것'(2.4%)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그쳤다.(표 3-7)

○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농업인을 주소득 작목별로 분석해 보면, 노지채소 농가와 시설원예 농가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도작 농가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으나 계층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표 3-7. WTO 뉴라운드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

단위: 명, ( )는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큰 타격을 줄 것	72.9	77.6	81.4	77.1	78.4	77.1	63.1	640(75.2)
약간 타격을 줄 것	18.4	18.7	15.2	20.5	17.1	15.7	26.3	155(18.2)
큰 변화는 없을 것	2.8	2.8	1.7	0.0	3.4	1.4	0.0	20(2.4)
장기적로 유리할 것	1.4	0.0	0.0	1.2	0.0	1.4	0.0	8(0.9)
잘 모르겠다	4.5	0.9	1.7	1.2	1.1	4.3	10.5	28(3.3)
응답자수(명)	425	107	59	83	88	70	19	851(100.0)

○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반응에서도 '매우 걱정된다'(75.3%), '약간 걱정된다'(18.6%)로 조사돼 전체 응답자중 93.9%가 우려감을 나타냈고, '수출 기회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반응은 1.0%에 지나지 않았다.(표 3-8)

○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자를 주소득 작목 계층별로 살펴보면, 과수농가와 노지채소 농가에서 분포가 많았으며, 시설원예와 수도작 농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3-8.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반응

단위: 명,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매우 걱정된다	72.1	86.1	84.8	77.1	71.6	75.7	65.0	643(75.3)
약간 걱정된다	20.4	12.0	10.2	16.9	20.5	21.4	30.0	159(18.6)
신경쓰지 않는다	4.2	0.0	5.1	4.8	2.3	0.0	0.0	27(3.2)
수출기회로 삼겠다	0.7	0.9	0.0	1.2	3.4	0.0	5.0	9(1.0)
생각해보지 않았다	2.3	0.9	0.0	0.0	2.3	2.9	0.0	16(1.9)
응답자수(명)	426	108	59	83	88	70	20	854(100.0)

○ 2002년 본격화될 WTO 뉴라운드 농업분야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관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시장 점진적 개방'이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 인정'(36.1%), '개도국 지위유지'(10.8%), '보조금 점진적 삭감'(9.4%)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9)

○ 이를 주소득 작목 계층간에 비교하면, '시장 점진적 개방'은 특작농가에서, '쌀 비교역적 특성 인정'은 수도작 농가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는 시설원예 농가에서, '보조금 점진적 삭감'은 축산농가에서 각각 가장 중요한 협상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계층별로는 수도작 농가와 축산농가는 '농업의 비교역특성 인정'을, 과수 농가와 노지채소, 시설원예, 특작 농가는 '시장 점진적 개방'을 협상에서 관철해야할 중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표 3-9. WTO 농업 협상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분야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는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시장 점진적 개방	34.6	51.9	57.9	37.0	50.6	60.9	26.3	351(42.2)
쌀 비교역특성 인정	47.6	23.1	10.5	38.3	22.4	17.4	52.6	300(36.1)
개도국 지위 유지	8.4	15.4	14.0	8.7	16.4	11.6	10.5	90(10.8)
보조금 점진적 삭감	7.9	8.6	14.0	14.8	9.4	8.7	10.5	78(9.4)
기타	1.4	1.0	3.5	1.2	1.2	1.4	0.0	12(1.5)
응답자수(명)	416	104	57	81	85	69	19	831(100.0)

○ 결과적으로, WTO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 등 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농업인 대다수는 이런 대외 환경변화가 우리 농업에 타격을 줄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외 협상에서는 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협동조합 개혁·농작물재해보험·농촌 복지에 대한 견해

○ 통합농협 출범 1년 5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농업인들은 협동조합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은 13.9%에 그친 반면, '개혁에 진전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7.1%로 나타났고, 여기에 '개혁이 퇴보하고 있다'(18.2%)는 응답까지 더하면, 전체의 75.3%는 개혁이 후퇴했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표 3-10)

표 3-10. 협동조합 개혁작업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는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잘되고 있는 것 같다	14.8	13.9	5.2	12.1	16.1	14.3	20.0	118(13.9)
개혁에 진전이 없다	60.0	55.6	56.9	53.0	49.4	57.1	55.0	483(57.1)
개혁이 퇴보하고 있다	15.5	14.8	17.2	27.7	27.6	20.0	10.0	154(18.2)
잘 모르겠다	9.7	15.7	20.7	7.2	6.9	8.6	15.0	91(10.8)
응답자수(명)	420	108	58	83	87	70	20	846(100.0)

○ 협동조합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을 작목별로 계층간 비교하면, 시설원예와 수도작 농가에서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노지채소 농가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계층간 큰 차이는 없었다.

○ 2001년 3월부터 사과와 배에 시범 도입돼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자연재해에 의한 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고 있는지 견해를 물어본 결과, '보장해 주고 있다'는 응답이 12.9%에 그친 반면, '보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0.8%로 나타났고 '모르겠다'고 평가를 유보한 농업인도 46.3%에 달해 아직 첫해 시행으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표 3-11)

○ 주소득 작목 계층간에는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은 특작농가에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시설원예 농가에서, '모르겠다'고 평가를 유보한 계층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아닌 수도작 농가에서 가장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행 대상이었던 과수농가의 평가는 '보장하고 있다'(13.3%), '보장하지 못한다'(42.9%), '모르겠다'(43.8%)로 나타나 전체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 3-11.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지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보장하고 있다	12.1	13.3	14.6	9.7	17.1	17.7	0.0	107(12.9)
보장하지 못한다	36.5	42.9	38.2	43.9	48.9	48.8	47.4	339(40.8)
모르겠다	51.4	43.8	47.3	46.4	34.1	34.1	52.6	385(46.3)
응답자수(명)	414	105	55	82	88	68	19	831(100.0)

○ 농촌 복지와 관련한 문항으로 농업인들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어떤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의료시설' 이라는 응답 비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시설'(26.7%), '문화시설'(26.1%) 순으로 나타나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농업인이 가장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12)

○ 이같은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교육시설'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젊은층 일수록 뚜렷이 높아졌고, 반면, '의료시설'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그 비율도 높아졌음. '문화시설'에 대한 불편은 계층간 차지 없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체적으로 30~40대는 교육시설에 대한 불편을, 50대 이상은 의료시설에 대한 불편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2. 농촌에 거주하면서 이용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시설

단위: 명, %

구 분	연 령 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교육시설	50.0	45.8	28.4	17.1	13.2	216(26.7)
의료시설	18.7	27.6	40.4	53.2	50.5	350(43.2)
문화시설	31.3	24.5	26.2	24.8	31.9	211(26.1)
기타	0.0	2.1	5.0	4.9	4.4	33(4.0)
응답자수(명)	17	192	183	327	91	810(100.0)

Ⅳ. 쌀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농업인 의식

○ 급변하는 쌀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해 이번「2001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쌀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농업인들의 쌀산업 여건 변화에 대한 의식을 비롯해 중산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는 쌀산업 정책 변화에 대한 견해와 개방화에 대응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양정의 기본방향 전환에 대한 견해

○ 농업인들은 2001년 쌀가격 하락 등 쌀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양정의 기본방향을 전환하는데 대체로(84.1%)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정의 기본 틀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길 원하는 농업인은 15.9%에 그쳤다. 벼농사 규모별로는 1ha~1.5ha의 규모를 가진 농가에서 쌀산업 기본정책 변화에 부정적인(18.8%)입장이 다소 많았으나,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표 4-1)

표 4-1. 쌀산업 정책 기본방향 전환 동의 여부

단위: 명, %

구 분	벼농사 규모별						계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동의 한다	84.7	82.1	81.2	88.0	84.2	88.5	681(84.1)
동의하지 않는다	15.3	17.9	18.8	12.0	15.8	11.5	129(15.9)
응답자수(명)	150	223	154	92	95	96	810(100.0)

○ 쌀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동의한 농가중 중산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4%가 지금까지의 중산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사규모 별로도 이와 같은 견해에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표 4-2)

표 4-2. 증산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명, ( )는 %

구 분	벼농사 규모별						계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동의 한다	95.2	94.1	95.2	93.8	92.5	95.2	643(94.4)
동의하지 않는다	4.8	5.9	4.8	6.2	7.5	4.8	38(5.6)
응답자수(명)	126	185	125	81	80	84	681(100.0)

○ 이와 함께, 농업인들은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으로 가장 시급히 도입돼야할 정책에 대해 '농가소득안정 직불제'(40.9%)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미작경영안정제'(26.7%), '전작·휴경 보상 등 생산조정제'(23.1%), '공공비축제 등 수매제 개편'(8.4%) 순으로 나타났다.(표 4-3)

○ 벼농사 규모별로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수매제 개편'은 0.5ha～1ha 소유 농가가(13.1%), '미작경영안정제'는 2ha～3ha 소유 농가가(32.9%), '생산조정제'는 0.5ha 미만 소유 농가가(28.0%), '농가 소득안정직불제'는 3ha 이상 소유농가가(45.2%)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으로 가장 시급히 도입돼야할 정책

단위: 명, %

구 분	벼농사 규모별						계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공공비축제 등 수매제 개편	7.2	13.1	10.2	3.8	5.1	4.8	57(8.4)
마작경영안정제	24.8	22.4	25.8	28.7	32.9	32.1	181(26.7)
전작·휴경 보상 등 생산조정제	28.0	24.0	23.4	25.0	16.5	17.9	157(23.1)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36.8	39.9	40.6	42.5	44.3	45.2	278(40.9)
기타	3.2	0.6	0.0	0.0	1.2	0.0	6(0.9)
응답자수(명)	125	183	128	80	79	84	679(100.0)

2. 지역별 쌀값 하락 정도

○ 2001년도 산지 쌀값이 40kg 조곡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얼마나 하락했는지 조사한 결과는, 4천원 이상 하락했다는 응답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3천원~4천원이 12.1%, 2천원~3천원이 9.5%로 나타났다.(표 4-4)

○ 4천원 이상 하락했다는 응답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지역이 74.0%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과 경북지역도 70% 선으로 조사돼 이지역에서 쌀값 하락이 가장 뚜렷했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반면, 제주를 제외한 경기와 충북지역은 각 54.8%, 63.5%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쌀값 하락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정도는 각지역에서 4천원 이상 하락했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쌀값 하락이 농가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지역에서만 타지역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2000년 대비 2001년 산지 쌀값 하락 정도(40kg 조곡기준)

단위: 명, %

구 분	지 역 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천원 이하	10.7	1.8	3.2	0.8	1.1	0.7	0.8	0.9	11.1	18(2.2)
1~2천원	9.5	16.7	7.9	7.1	6.5	7.1	10.5	7.7	33.3	72(8.9)
2~3천원	16.7	5.6	9.5	5.5	8.7	12.9	8.9	7.7	11.1	77(9.5)
3~4천원	8.3	9.2	15.9	12.6	10.9	12.2	8.1	19.0	11.1	98(12.1)
4천원 이상	54.8	66.7	63.5	74.0	72.8	67.1	71.7	64.7	33.3	544(67.3)
응답자수(명)	84	54	63	127	92	140	124	116	9	809(100.0)

3. 수매가 조정에 대한 의견

○ 2001년 논란이 되었던 수매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49.7%) '추곡수매 가격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수매가격을 점차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12.0%에 달해 농업인 61.7%는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 이같은 결과를 벼농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수매가를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분포는 1.5ha~3ha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57%선)이 가장 많았고, 수매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0.5ha 미만의 소농층에서(17.3%) 분포도가 가장 높았다. 수매가를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38.3%로 나타났는데, 1~1.5ha의 벼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농가에서 가장 높은 분포(41.1%)를 보였다.

표 4-5. 향후 추곡수매가격 결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벼농사 규모별						계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	42.0	37.7	41.1	37.9	34.0	34.0	316(38.3)
동결해야 한다	40.7	47.4	49.4	57.9	57.7	53.6	410(49.7)
점차 낮춰야 한다	17.3	14.9	9.5	4.2	8.3	12.4	99(12.0)
응답자수(명)	150	228	158	95	97	97	825(100.0)

4. 2002년 쌀 재배면적 조정 여부

○ 2002년 쌀 재배면적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중 71.7%가 '현수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4.0%,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으며 나머지 12.1%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향후 쌀 가격 안정대책 등 정책변화에 따라 재배면적을 조정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4-6)

○ 벼농사 규모별로는, '현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63.4%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반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

은 23.2%로 상대적으로 높아 소농 일 수록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2002년 쌀 재배면적 조정 여부

단위: 명, ( )는 %

구 분	벼농사 규모별						계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축소할 계획이다	12.0	14.7	15.7	17.9	11.2	11.3	115(14.0)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63.4	73.2	74.2	70.5	77.6	71.4	590(71.7)
확대할 계획이다	1.4	0.9	1.3	3.2	4.1	5.1	18(2.2)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3.2	11.2	8.8	8.4	7.1	12.3	100(12.1)
응답자수(명)	142	231	159	95	98	98	823(100.0)

5. 논농업직불제 시행에 대한 평가

○ 2001년 처음으로 시행한 논농업직불제가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34.6%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고, 41.4%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7)

○ 이 결과를 벼농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농가는 2ha～3ha의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38.9%),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농가는 3ha 이상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서(51.0%)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0.5ha 미만 농가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27.2%) 나타났다.

표 4-7. 논농업직불제가 농가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벼농사 규모별						계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27.2	34.8	38.5	34.0	38.9	35.7	285(34.6)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	37.7	39.1	41.0	39.4	45.3	51.0	341(41.4)
잘 모르겠다	35.1	26.1	20.5	26.6	15.8	13.3	198(24.0)
응답자수(명)	151	230	156	94	95	98	824(100.0)

6.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

○ 쌀값 하락 여파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거래제한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견해를 물어본 결과, 농업인 71.3%는 '농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행 농지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 17.1%와 6.2%에 그쳐 대다수 농업인들은 농지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 농지규제 완화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벼농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대체로 벼농사 규모가 큰 농가 일수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ha~2ha 규모의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11.6%) 높게 나타났다.

표 4-8. 농지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는 %

구 분	벼농사 규모별						계
	0.5ha 미만	0.5 ~ 1ha	1 ~ 1.5ha	1.5 ~ 2ha	2 ~ 3ha	3ha 이상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14.5	19.9	19.5	14.7	15.3	14.4	142(17.1)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66.4	68.4	72.9	71.6	76.5	77.3	593(71.3)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8.6	5.2	3.8	11.6	5.1	5.2	52(6.2)
잘 모르겠다	10.5	6.5	3.8	2.1	3.1	3.1	45(5.4)
응답자수(명)	152	231	159	95	98	97	832(100.0)

7. 쌀 소비 촉진방안에 대한 의견

○ 농업인들은 쌀소비 촉진 방안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쌀관련 식품개발 정책적 지원'(49.5%)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꼽았으며, 다음으로 '미질개선 등 고품질쌀 생산'(24.5%), '식생활 변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18.3%)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쌀 소비촉진운동 전개'는 6.5%에 그쳐 농업인들은 쌀 소비촉진 운동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보인다.(표 4-9)

표 4-9. 쌀소비 촉진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는 %

구 분	벼농사 규모별						계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쌀 소비촉진운동 전개	7.9	8.7	7.0	1.1	6.1	4.1	54(6.5)
식생활 변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15.9	15.1	16.5	24.2	23.5	21.4	152(18.3)
쌀관련 식품개발 정책적 지원	47.7	51.1	50.6	50.5	43.9	51.0	411(49.5)
미질 개선 등 고품질쌀 생산	27.8	24.7	25.3	20.0	24.5	22.5	204(24.5)
기타	0.7	0.4	0.6	4.2	2.0	1.0	10(1.2)
응답자수(명)	151	231	158	95	98	98	831(100.0)

V. 기타의견 및 건의사항

○ 조사대상자에게 농업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기타의견에서 대다수 농업인들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과,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 했으며, WTO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 등 개방압력 가속화에 따른 관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년도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농가부채 경감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문제제기도 현저히 줄었다.

□ 쌀값 안정대책에 대한 의견

○ 쌀 재고 누적과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 농업인들은 1차적으로 수급 조절에 실패한 농정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정부의 잇따른 가격안정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가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중산에서 품질위주로 양정을 전환하려는 방침과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하 움직임에 대해,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기에 앞서 구체적인 농가 소득보전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반면, 일부 농업인들은 쌀 소비 촉진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확대를 위한 관련식품개발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벼 농사 환경변화에 맞춰 농지와 수매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 우리 나라 쌀값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4~5배나 비싸 경쟁력이 없다는 통계에 대해, 정부가 수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치적인 고려가 결부돼 방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 지금에 와서 협상을 앞두고 갑자기 수매가 동결 등 가격을 낮추려는 움직임은 농민을 파산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 농업인들은 쌀 개방을 전제로 당장의 쌀값 인하를 추진할게 아니라 농자재값 인하 등 비용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유도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정부가 영농단이나 마을단위로 건조기와 볍씨 파종기를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현실적으로 수매가를 내려야하는 상황이라면, 수매가는 내리면서 그만큼의 농가소득 손실분은 논농업직불제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직불제 대상 면적과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 농업인들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농산물값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 현 정부가 유통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하므로 수급 조절 등 유통개선에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특히, 채소의 경우 가격 등락폭이 심해 피해가 크므로 정부에서

적정면적을 권장해야 하며, 과잉생산으로 인한 폐기는 농협이나 법인의 계약재배분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분도 정부에서 적정면적을 산출하여 폐기토록 해야하고 전 농산물의 가격예시제도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 각 읍면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통해 홍수출하 방지도 필요 하다고 주장했고, 이와 함께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담합 행위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 농산물 수입개방

○ WTO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으로 경쟁력이 없는 우리 농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협상팀은 농업보조금 감축 최소화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출농업 지원도 확대해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 WTO 뉴라운드 협상과 FTA협상 등에서 농업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증가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등 국내 농업의 보호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일부 농업인은 시장개방을 막을 수 없다면 개방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비농업 부문의 이익에서 보상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농업인들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농가부채 경감 대책

○ 연대보증 해소를 위한 조치가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신용보증은 보증료가 지나치게 높아 저소득 농업인

은 대출 받기가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농업인들은 농업 정책자금 이율도 지나치게 높고 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농가부채 해소와 경영개선을 위해 이율을 3%대로 인하하고 조건 완화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 일부 농업인은 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어 부채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 적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농업인들의 구조조정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또, 농업인연대보증 문제가 일부는 해결되고 있으나, 아직 일반 시중은행 연대보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도 정부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 농협 구조조정

○ 농협중앙회가 통합되는 등 농협 개혁이 기대됐으나 구조조정 등의 후속조치가 미흡해 오히려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조합장 등 임직원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농협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였다. 또,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해 혼탁선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농자재 관련

○ 농약·비료·종자 등 농자재의 신제품은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 영농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적정가격 형성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최근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많은 가짜 미생물제

나 유기질 비료 등이 관을 치고 있어 농업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 강력한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농지문제 관련

○ 쌀값 하락 등 영농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인들이 농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있었고,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은 대폭 완화하고 비닐하우스 설치 등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농지매매시 각 부락에 있는 농지위원들에게 도장을 받아야 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므로 면사무소에서 한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농업·농촌의 정보화

○ 농업인들은 아직도 농업농촌의 정보화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컴퓨터의 저가 공급과 초고속 통신망의 설치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인터넷 사용요금 등 정보이용 요금이 너무 비싸 부담이 되므로 요금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 농촌 복지

○ 농촌지역에는 고령자가 많은데 의약분업 시행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감안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해 놓았으나 활용도가 낮아 예식장이나 주부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또 농촌지역 학교 공동화를

막기위한 농촌지역 교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 기타

○ 이밖에 농업인들은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일반 국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쌀 값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품종보급 등 지도사업 강화를 요청하였다. 또, 농산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대표 농산물 육성도 시급하다고 주문하였다.

Ⅵ. 요약 및 시사점

○ 이번 「2001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93년 UR협상 타결이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5년 WTO 체제 출범, '98년 IMF 체제, 2001년 뉴라운드 출범 등으로 이어지는 변화 속에서 농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감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인들은 농사와 관련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농산물 가격'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 88.8%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으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농가중 노지채소와 시설원예 등 채소농가의 손실이 타작물 재배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중산 위주 농업정책 기조를 전환, 수급 조절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관측에 기초한 적정재배 권장과 조절을 통해 농산물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해(25.8%) 이같은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 '97년 이후 쌀값 안정에따라 한자리 수에 머물던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도는 2001년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보다 3배나 크게 증가하였고,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도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반면, 전년도에 가장 큰 관심사였던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시행 등으로 관심도도 크게 낮아졌고, 정부의 농업정책중 가장 성과가 컸던 부문으로도 꼽아 농업인들의 농가부채에 대한 불만은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농가부채가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농업인은 13.9%에 지나지 않은 반면, 증가했다는 농업인은 그 배에 달해 농가부채 경감 대책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농업인은 10명중 1명 정도(9.9%)에 그쳐 '97년 이후 20%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새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농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응답자도 61.0%에 달해 농업인들의 직업으로써의 농업에 대한 만족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현상은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농업인 절반정도가 2001년 농촌생활 수준이 5년전에 비해 퇴보했다고 느끼고 있고, 2002년과 5년후의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 1.7%와 4.4%에 그쳐 농촌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 농촌 계속 거주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중 7명(70.0%)이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고, 13.1%는 이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농 사유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영농환경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에 대한 농업승계 의향을 가진 농업인은 2.5%에 그쳤고, 절반이 넘는 55.5%의 농업인은 자녀의 뜻대로 직업을 선택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갖기를 희망하는 직업은 역시 안정적인 공무원을 지난해에 이어 첫째로 꼽았고 그 외에 엔지니어, 회사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 농업인들의 정보 입수 경로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텔레비젼을 통해, 농업 정보는 농업관련 신문 및 잡지를 통해 입수한다는 응답이 각 66.7%와 64.5%로 조사돼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인터넷과 PC 등 정보망을 활용하는 농업인은 각 0.7%와 0.9%로 극히 미약한 것으로 조사돼 농업·농촌 정보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업인 대다수(93.9%)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WTO 차기협상에서는 '시장의 점진적 개방' 관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2001년 쌀산업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해 농업인 84.1%는 양정의 기본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중 94.4%는 중산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농업인들은 대체적으로 쌀산업과 관련한 정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또, 농업인들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으로는 농가 소득안정직불제(40.9%)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매가격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3%인 반면,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61.7%에 달하였다.

○ 2001년 쌀값 하락이 차기년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재배면적 조정 의향을 물어본 결과, 현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71.7%, 축소할 계획은 14.0%, 확대 계획은 2.2%로 조사되었고,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농업인 71.3%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대다수 농업인들이 농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쌀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농업인 절반 가까이(49.5%)가 '쌀관련 식품개발 정책적 지원'을 꼽았으며, '고품질쌀 생산'(24.5%), '대국민 홍보'(18.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지자체가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소비촉진운동은 6.5%에 그쳐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지금까지 '93년 UR협상 타결에서 2001년 뉴라운드 출범까지 일련의 개방농정 시대에 농업인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파악하고, 최근의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변화도 살펴 보았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은 '98년 IMF체제 출범 이후 영농비 상승과 부채 증가, 개방압력 가속화로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감을 급격히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를 반영해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과 함께 농업·농촌에 대한 중장기 비전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의 직업관이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끝으로, 이 조사 결과가 개방농업 시대를 겪으면서 변화된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정책 연구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부 록

「2001년 농업인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조사표

■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기본 조사

1) 농사와 관련하여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두가지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① 농산물 가격　② 추곡수매　③ 영농자금·농가부채
④ 농산물 수입개방　⑤ 농촌지역개발　⑥ 농촌인력
⑦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　⑧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⑨ 영농시설 현대화　⑩ 농지문제(매매,가격,진흥지역,임대차 등)

2)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얻고 계십니까? ( )

① 일반신문 ② 농업관련신문, 잡지 ③ 라디오 ④ 텔레비젼
⑤ 영농교육 ⑥ 홍보용 책자 ⑦ 가족,이웃주민,반상회
⑧ 인터넷·PC통신 등

3) 농사와 관련한 소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계십니까? ( )

① 일반신문 ② 농업관련신문, 잡지 ③ 라디오 ④ 텔레비젼
⑤ 영농교육 ⑥ 홍보용책자 ⑦ 가족,이웃주민,반상회
⑧ 인터넷·PC통신 등

4)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 이었습니까? ( )

① 영농자금부족, 농가부채 ② 농작물 병충해 ③ 농촌인력 부족
④ 농사정보 부족 ⑤ 기상, 기후조건 ⑥ 농작물 가격불안정
⑦ 농지문제 ⑧ 수입개방 ⑨ 기타

5) 올해(2001년)의 농촌 생활수준은 5년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마찬가지이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6) 작년(2000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마찬가지이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7) 앞으로 5년후 농촌의 생활은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② 현재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③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다

8) 앞으로 5년후 농촌의 생활은 도시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② 도시만큼 살게 될 것이다
③ 도시보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다

9) 내년(2002년)농업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 )

①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다 ② 금년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③ 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10)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①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②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편이다
③ 다른 산업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국가경제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11) 다음의 사항은 5년전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 하시면 ①, 조금 좋아졌으면 ②, 보통은 ③, 조금 나빠졌으면 ④, 매우 나빠졌으면 ⑤,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의 해당란에 V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1) 농사방법과 기술					
(2) 문화복지시설					
(3) 소득 향상					
(4) 도로교통등 생활환경					
(5) 교육환경					
(6) 농가 자금사정					
(7) 농산물 가격					
(8) 농촌일손					
(9) 자녀교육					
(10) 농외소득기회					
(11) 영농(농지)규모					
(12) 농산물 유통					
(13) 농사 수익성					
(14) 농가부채·영농자금					
(15) 농업의 중요성					
(16) 공동생활문화					
(17) 이웃간 대화					
(18) 정부의 농업인식					
(19) 일반국민의 농업인식					
(20) 농산물 수입개방					
(21) 농자재수급 및 가격					
(22) 농민의 농업애착					

12) 농촌의 생활중 좋아진 점이 있다면 위에 열거한 사항중 어떤 항목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번호로 적어 주십시오. (,)

13) 농촌의 생활수준이 못해졌다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열거한 사항중 두가지만 골라 적어주십시오. (,)

14) 위에 열거한 내용중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 두가지만 골라 번호로 적어주십시오. (,)

15) 농업에 종사하시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16) 농사를 짓는 것이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유리하다 ② 비슷하다 ③ 불리하다 ④ 본인하기에 달렸다

17)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 계획입니까? ( )

① 농촌에 계속 살겠다 ② 농촌을 떠날 생각이다
③ 도시로 갔다가 돈을 벌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생각이다
④ 모르겠다

18) (문 17에서 ④번을 답하신 분만)
앞으로 농촌에서 계속 사시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농촌의 생활환경이 좋아서
②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③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으므로
④ 이제까지 농촌에 살아서 모든 생활근거가 농촌에 있으므로

⑤ 농사이외에 다른 기술이 없어서
⑥ 나이가 많아 직업을 바꾸기 어려워서
⑦ 도시에서 살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서
⑧ 심리적인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⑨ 여생을 보내기 위해
⑩ 기타 _____

19) (문17에서 ②③번을 답하신분만)
농촌을 떠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자녀 교육을 위해서
② 농사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직업을 변경하여 돈을 벌기 위해
③ 농촌의 생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변해서
④ 농촌노동력 부족 등 농사짓는 여건이 차츰 어려워져서
⑤ 농사규모를 늘려갈 전망이 없어서
⑥ 자녀들이 도시에 정착해 있어서
⑦ 농촌에는 농사이외에 할만한 일이 없어서
⑧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서
⑨ 기타_____

20) (문17에서 ②③번을 답하신 분만)
농촌을 떠난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
① 1년 이내 ② 3년이내 ③ 5년이내 ④ 10년 이내
⑤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21) 귀하께서는 자녀에게 농업을 권하시겠습니까? ( )
(자녀가 이미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직업을 가질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가상하여 응답 하시기 바랍니다. 22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① 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협조하겠다

② 다른 직업을 택하도록 하겠다
③ 자녀의 뜻대로 하겠다

22) (문21에서 ②번을 답하신분만)
자녀에게 다른 직업을 권한다면 어떤 직업을 권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 농정 현안을 중심으로 한 의식구조 조사

23) 올 한 해 정부가 추진한 농업시책 가운데 성과가 컷다고 느껴지는 것 두가지만 골라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① 농정조직 개편과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혁
② 농가부채 및 농업인 연대보증 문제 해결
③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
④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유통구조 개혁
⑤ 해외시장 개척과 농산물 수출지원 확충
⑥ 국제 농산물 협상에 적극 대응
⑦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⑧ 농촌 복지대책

24) 올 한 해 추진한 농업정책중 미진한 점 두가지만 순서대로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
① 농정조직 개편과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혁
② 농가부채 및 농업인 연대보증 문제 해결
③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
④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유통구조 개혁

⑤ 해외시장 개척과 농산물 수출지원 확충
⑥ 국제 농산물 협상에 적극 대응
⑦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⑧ 농촌 복지 대책

25) 최근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귀하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보셨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6) (문25에서 ①번을 답하신분만)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올 농업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어느정도 줄었습니까? ( )
① 1~10% ② 10~20% ③ 20~30% ④ 30~40% ⑤ 40% 이상

27) 매년 되풀이되는 농산물값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업 관측사업 강화 ② 농산물 출하 정보 제공 확대
③ 농업관련기관의 지도사업 강화
④ 농가의 투기작물 재배 억제
⑤ 기타 _____

28) 올해 귀하의 부채는 지난해에 비해 어느정도 개선됐습니까? ( )
① 줄었다 ② 그대로다 ③ 늘었다

29) (28번 문항 ①번 응답자만)
부채가 줄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
①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

② 경영비와 생활비 절감 등 자구노력

③ 기타_____

30) 최근 WTO 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협상이 우리 나라 농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큰 타격을 줄 것이다 ② 약간 타격을 줄 것이다

③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④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31) 중국이 지난 11월10일 WT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나라 농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걱정이 된다 ② 약간 걱정이 된다

③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④ 오히려 농산물 수출 기회로 삼겠다

⑤ 생각해 보지 않았다

32) WTO 차기 농업 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가장 역점을 두고 관철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산물 시장의 점진적 개방 ② 쌀의 비교역적 특성 인정

③ 개도국 지위 유지 ④ 농업보조금 점진적 삭감 관철

⑤ 기타 _____

33) 통합농협이 출범한지 1년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귀하는 협동조합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

① 잘되고 있는 것 같다

② 개혁에 진전이 없다

③ 개혁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34)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자연재해에 의한 농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35) 귀하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어떤시설 이용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십니까? ( )

① 교육시설 ② 의료시설 ③ 문화시설 ④ 기타 _____

■ 쌀산업 여건 변화에 대한 견해

36) 올해 우리 나라는 쌀 소비 감소와 재고 증가로 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쌀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 )

① 동의 한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37) (문 36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쌀산업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면 기존의 증산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는 것에도 동의 하시겠습니까? ( )

① 동의한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38) 귀하는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으로 가장 시급히 도입돼야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공비축제 등 수매제 개편
②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미작 경영안정제

③ 전작·휴경 보상제 등 생산조정제
④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직불제
⑤ 기타 _____

39)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올해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40kg 조곡기준) ( )

① 1천원 이하 ② 1~2천원 ③ 2~3천원 ④ 3~4천원
⑤ 4천원 이상

40) 귀하는 향후 추곡수매 가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 ② 동결해야 한다
③ 점차 낮춰야 한다

41) 귀하는 내년(2002년) 쌀 재배면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축소할 계획이다 ②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③ 확대할 계획이다 ④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42) 귀하는 올해 처음 시행한 논농업직불제가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

①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
③ 잘 모르겠다

43)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업진흥지역 완화와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자유로운 농지매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귀하는 농지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②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③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44) 쌀 재고 증가는 소비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귀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① 쌀 소비 촉진운동 전개 ② 식생활 변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③ 쌀관련 식품개발 정책 지원 ④ 미질 개선 등 고품질쌀 생산
⑤ 기타 _____

45) 귀하의 벼농사 규모는? ( )

① 없다 ② 1,500평 미만 ③ 1,500-3,000평 미만
④ 3,000-4,500평 미만 ⑤ 4,500-6,000평 미만
⑥ 6,000-9,000평 미만 ⑦ 9,000평 이상

■ 현지통신원 개인정보

A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_____ 도 _____ 군

A2> 현재(2001년)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세 이상

A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무학 ② 한학 ③ 국졸 ④ 중졸 ⑤ 고졸 ⑥ 대졸(퇴)이상

A4> 귀하의 영농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5년이내 ② 5~10년 미만 ③ 10~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A5> 귀하의 전체 농지 규모는? (소유 및 임차농지는 포함하되 임대농지는 제외) ( )

① 없다 ② 1,500평 미만 ③ 1,500-3,000평 미만
④ 3,000-4,500평 미만 ⑤ 4,500-6,000평 미만
⑥ 6,000-9,000평 미만
⑦ 9,000평 이상

A6>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무엇입니까? ( )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_____

A7>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30% 미만 ② 30~50% ③ 50~70% ④ 70~90%
⑤ 90% 이상

A8> E-mail과 핸드폰이 있으신 분은 적어주십시오.

E-mail :

핸드폰 :

■ 기타의견 및 건의사항

참고 문헌

김동원, 조태희. 2001. "2000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결과" 「농촌경제」, 제24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민남, 최익수. 1982. "농민의 의식구조 변화" 「농촌경제」, 제5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2001. 「농림업 주요통계」

박대식, 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연구보고 R4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등. 1999. 「중장기 농가부채대책 방향」. 연구보고 R4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농가경제통계」각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전망 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농업·농촌경제동향」. 2001 겨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2001.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 결과".

연구보고 D162
2001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2002. 3.
발 행 2002. 3.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 : //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